2027

강남대·신한대·한신대 파이널 특강

2026 강남대·신한대·한신대 기출 구조 분석,
EBS 수능특강 제시문으로 만든 독서·문학 파이널 특강 30제

스터짐 교재연구팀 지음

Spartan PE System
STUGYM



FINAL

2027 약술형 논술 국어

강남대학교·신한대학교·한신대학교

전 영역
파이널 특강

KOREAN

0. 강남·신한·한신 파이널 특강 가이드

01 강남·신한·한신 파이널 특강 가이드 상세 008p

1. 강남·신한·한신 파이널 특강 넘버링

01 독서 특강 넘버링 (EBS 쪽 · 번호 · 문항 유형) 014p
02 문학 특강 넘버링 (EBS 쪽 · 번호 · 문항 유형) 015p
03 독서 특강 학습 기록표 016p
04 문학 특강 학습 기록표 017p

2. 독서 특강

TG-115 롤스와 매킨타이어의 정의관 비교 · 수특 독서 p.025 020p
TG-116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 수특 독서 p.127 023p
TG-117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 수특 독서 p.280 027p
TG-118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적 시도와 표현 기법 · 수특 독서 p.028 030p
TG-119 법률혼 제도와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 수특 독서 p.132 033p
TG-120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의 역노화 기술 · 수특 독서 p.308 036p
TG-121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의 전개 · 수특 독서 p.038 039p
TG-122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 · 수특 독서 p.258 042p
TG-123 독자 개념의 변화 및 담화 공동체 독자의 특성과 한계 · 수특 독서 p.296 046p
TG-124 전략적 독서 방법인 SQ3R과 CSQ3R · 수특 독서 p.009 049p
TG-125 후성 유전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항암 치료 · 수특 독서 p.168 052p
TG-126 한계 상황을 통한 초월자와의 만남과 실존 회복 · 수특 독서 p.283 056p
TG-127 형식 논리학의 특징 및 한계와 논리학을 인간 의식과 사고의 본질로 확 · 수특 독서 p.011 059p
TG-128 인체 내 에너지 대사와 에너지 균형 유지 · 수특 독서 p.203 062p
TG-129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의 등장 배경과 성과 · 수특 독서 p.286 066p
TG-130 윌턴의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 · 수특 독서 p.013 069p
TG-131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과정 · 수특 독서 p.214 073p
TG-132 법인세의 복합적 성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특 독서 p.304 076p

CONTENTS.

3. 문학 특강

TG-133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036	082p
TG-134	해벽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193	086p
TG-135	징 소리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016	091p
TG-136	관부 연락선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185	095p
TG-137	길 (현대시) · 수특 문학 p.009	100p
TG-138	눈 오는 날에 · 유등제 (현대시) · 수특 문학 p.099	103p
TG-139	하나씩의 별 (현대시) · 수특 문학 p.032	107p
TG-140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 수특 문학 p.013	110p
TG-141	월곡답가 (고전시가) · 수특 문학 p.048	113p
TG-142	임진록 (고전산문) · 수특 문학 p.020	116p
TG-143	서해무릉기 (고전산문) · 수특 문학 p.125	120p
TG-144	황새결송 (고전산문) · 수특 문학 p.304	124p

4. 독서 특강 정답과 해설

TG-115	롤스와 매킨타이어의 정의관 비교 · 수특 독서 p.025	130p
TG-116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 수특 독서 p.127	134p
TG-117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 수특 독서 p.280	137p
TG-118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적 시도와 표현 기법 · 수특 독서 p.028	140p
TG-119	법률혼 제도와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 수특 독서 p.132	144p
TG-120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의 역노화 기술 · 수특 독서 p.308	147p
TG-121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의 전개 · 수특 독서 p.038	151p
TG-122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 · 수특 독서 p.258	154p
TG-123	독자 개념의 변화 및 담화 공동체 독자의 특성과 한계 · 수특 독서 p.296	158p
TG-124	전략적 독서 방법인 SQ3R과 CSQ3R · 수특 독서 p.009	161p
TG-125	후성 유전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항암 치료 · 수특 독서 p.168	165p
TG-126	한계 상황을 통한 초월자와의 만남과 실존 회복 · 수특 독서 p.283	168p
TG-127	형식 논리학의 특징 및 한계와 논리학을 인간 의식과 사고의 본질로 확 · 수특 독서 p.011	171p
TG-128	인체 내 에너지 대사와 에너지 균형 유지 · 수특 독서 p.203	174p
TG-129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의 등장 배경과 성과 · 수특 독서 p.286	177p
TG-130	월턴의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 · 수특 독서 p.013	180p
TG-131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과정 · 수특 독서 p.214	184p
TG-132	법인세의 복합적 성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특 독서 p.304	188p

CONTENTS.

5. 문학 특강 정답과 해설

TG-133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036	194p
TG-134	해벽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193	197p
TG-135	징 소리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016	201p
TG-136	관부 연락선 (현대소설) · 수특 문학 p.185	204p
TG-137	길 (현대시) · 수특 문학 p.009	208p
TG-138	눈 오는 날에 · 유등제 (현대시) · 수특 문학 p.099	211p
TG-139	하나씩의 별 (현대시) · 수특 문학 p.032	215p
TG-140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 수특 문학 p.013	218p
TG-141	월곡답가 (고전시가) · 수특 문학 p.048	222p
TG-142	임진록 (고전산문) · 수특 문학 p.020	225p
TG-143	서해무릉기 (고전산문) · 수특 문학 p.125	229p
TG-144	황새결송 (고전산문) · 수특 문학 p.304	232p

PART 0 이 책의 구성

제시문(자료)을 읽고, 핵심을 정리한 뒤, 문제 두 개로 확인합니다

책의 구성

강남대·신한대·한신대 약술형 논술 국어에 대비한 파이널 특강입니다. 세 대학은 독서·문학 중심의 같은 출제 구조여서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독서 18강, 문학 12강, 모두 30강입니다.

강마다 EBS 수능특강의 제시문을 문항과 함께 수록하고, 핵심 요약과 문제 2개를 실었습니다. 그림·수식·표가 든 지문은 이 책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편은 독서, 문학 순이고, 해설편도 같은 순서입니다. 해설편에는 문제마다 정답, 채점기준, 출제 의도, 풀이 전략이 있습니다.

강 번호(TG-115 … TG-144)는 EBS 교재의 위치와 스터짐 N·트래커의 학습 기록을 잇는 번호입니다. 넘버링 표에서 EBS 쪽을 찾고, 학습 기록표의 판정을 트래커에 옮겨 적으세요.

한 줄 목표 |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발문의 조건에 맞는 답안으로 쓰는 것.

PART 1 한 강을 푸는 순서

읽기, 정리, 풀이, 해설 확인의 순서를 지킵니다

네 단계

① 제시문 읽기 — 독서는 문단마다, 문학은 연·장면마다 중심 내용을 표시합니다.
② 핵심 요약 확인 — 내가 표시한 내용과 핵심 요약의 주제·구성·핵심 개념(전략·규정)을 대조합니다.
③ 문제 풀기 — 문제 1, 문제 2를 발문의 조건(글자 수·어절 수·표기)에 맞춰 직접 씁니다.
④ 해설 확인 — 정답과 채점기준을 보고 근거가 된 제시문의 위치를 다시 표시합니다.

표시 기호 | ○ 요구 동사 · □ 형식 조건 · 밑줄 정답 근거 · ↔ 비교·대응 관계

PART 2 회독과 최종 점검

같은 문제를 조건을 가리고 다시 쓸 수 있어야 끝납니다

3회독 완료 기준

1회독 — 제시문을 보며 풀고, 해설을 보기 전에 근거 문장을 표시한다.
2회독 — 해설을 덮고 제시문(자료)에서 근거를 찾아 다시 쓴다.
3회독 — 시간을 재고 문제 순서를 섞어 다시 쓴다.

시험 직전 체크

- ☐ 발문의 요구 동사와 모든 형식 조건을 표시했는가?
- ☐ 답의 핵심어가 제시문의 근거와 일치하는가?
- ☐ 완결된 문장인지, 불필요한 감상이 붙지 않았는가?

절대 금지 | 근거를 찾지 않고 해설의 답만 외워 쓰기 · 답을 눈으로만 확인하기

PART 3 강남대·신한대·한신대 고사장 가이드

시험 당일 아침에 이 쪽만 다시 읽어도 됩니다

시험 정보 (2027학년도 약술형 논술)

강남대: 2026. 11. 28.(토). 논술 80% + 학생부 20%, 수능최저 없음. 국어+수학 10문항 60분이며 인문 국어 8·수학 2, 자연 국어 3·수학 7, 자유전공 5·5문항입니다. 기출 13문항은 독서 8, 문학 5문항이었고 모두 문항 연계였습니다(스터짐 분석).
신한대: 2026. 11. 29.(일). 논술 90% + 학생부 10%, 수능최저 없음. 기출 15문항은 독서 8, 문학 7문항(인문 9, 자연 6문항)이었고, 15문항 가운데 12문항이 지문 연계, 3문항이 문항 연계였습니다(스터짐 분석).
한신대: 2026. 12. 5.(토). 논술 80% + 학생부 20%, 수능최저 없음. 국어+수학 15문항 80분이며 인문 국어 10·수학 5, 자연 국어 5·수학 10문항입니다. 기출 15문항은 독서 10, 문학 5문항이었습니다(스터짐 분석).

이 책의 강 배분

세 대학 모두 독서와 문학만 출제되고 독서의 비중이 큽니다. 이 책은 독서 18강, 문학 12강(현대소설 4·현대시 3·고전시가 2·고전산문 3)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의 문항 수와 상관없이 독서·문학 전 강을 같은 순서로 풀면 됩니다.

발문을 읽는 법 — 유형별 답안 작성

요약 빈칸: 정답은 대부분 제시문의 단어나 구절을 그대로 찾아 쓰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바꾸어 쓰면 오답이 됩니다. 빈칸 앞뒤에 이미 적힌 조사·어미는 정답에 넣지 않습니다.
글자 수·어절 수 조건(4자 이내, 10자 내외 등): 답을 쓴 뒤 반드시 세어 봅니다. 띄어쓰기를 세는지는 발문의 표시를 따릅니다.
어미 형식 조건(~ㄴ다, ~는 등): 내용이 맞아도 형식이 틀리면 점수를 잃습니다. 쓰기 전에 발문의 형식 조건을 먼저 표시합니다.
여러 빈칸(①②③): 번호 순서를 바꾸지 않고, 각 번호의 정답은 지문에서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술형·논술형: 발문의 조건(포함할 말, 금지할 말, 끝맺는 말, 글자 수)을 번호 붙여 적은 뒤 하나씩 충족하며 씁니다.
문학: 〈보기〉의 작품 해설이 가리키는 시어·시행·문장을 지문에서 찾는 문항이 중심입니다. 〈보기〉의 설명 한 줄 한 줄을 지문 속 표현과 대응시킵니다.

시험 직전 체크

- ☐ 발문의 요구(찾아 쓰기 / 서술 / 글자 수 / 어미 / 번호 / 기호)를 모두 밑줄 쳤는가?
- ☐ 답이 지문에 쓰인 그대로의 표기(띄어쓰기·조사·어미)인가?
- ☐ 빈칸 번호와 답의 순서가 맞는가?
- ☐ 답안지의 해당 번호 칸에 썼는가?

한 줄 정리 | 문항의 조건을 먼저 읽고, 지문에서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표기 그대로 옮겨 쓴다.

1 강남·신한·한신 파이널 특강 넘버링

제시문 · 핵심 요약 · 문제 2개

01 독서 특강 넘버링

순서	EBS 수특/수완 p	넘버링	제목	분야/갈래	문항 유형
1	수특 독서 p.025	TG-115	롤스와 매킨타이어의 정의관 비교	독서의 방법	A-1·N-5
2	수특 독서 p.127	TG-116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사회 · 문화	C-1·N-6
3	수특 독서 p.280	TG-117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1회	A-1·K
4	수특 독서 p.028	TG-118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적 시도와 표현 기법	독서의 방법	C-1·N-5
5	수특 독서 p.132	TG-119	법률혼 제도와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사회 · 문화	A-1·N-7
6	수특 독서 p.308	TG-120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의 역노화 기술	2회	C-1·K
7	수특 독서 p.038	TG-121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의 전개	독서의 분야	A-1·N-6
8	수특 독서 p.258	TG-122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	주제 통합	C-1·N-7
9	수특 독서 p.296	TG-123	독자 개념의 변화 및 담화 공동체 독자의 특성과 한계	2회	A-1·N-5
10	수특 독서 p.009	TG-124	전략적 독서 방법인 SQ3R과 CSQ3R	독서의 본질	C-1·N-6
11	수특 독서 p.168	TG-125	후성 유전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항암 치료	과학 · 기술	A-1·K
12	수특 독서 p.283	TG-126	한계 상황을 통한 초월자와의 만남과 실존 회복		C-1·N-5
13	수특 독서 p.011	TG-127	형식 논리학의 특징 및 한계와 논리학을 인간 의식과 사고의 본질로 확	독서의 본질	A-1·N-7
14	수특 독서 p.203	TG-128	인체 내 에너지 대사와 에너지 균형 유지	과학 · 기술	C-1·K
15	수특 독서 p.286	TG-129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의 등장 배경과 성과	1회	A-1·N-6
16	수특 독서 p.013	TG-130	윌턴의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	독서의 본질	C-1·N-7
17	수특 독서 p.214	TG-131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과정	과학 · 기술	A-1·N-5
18	수특 독서 p.304	TG-132	법인세의 복합적 성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회	C-1·N-6

넘버링 사용 원칙

• 넘버링(TG-115~TG-144)은 이 책의 강 번호이자 EBS 쪽·스터짐 N·트래커 학습 기록을 잇는 번호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학습하고 학습 기록표에 표시합니다.
• 한 강은 제시문(자료), 핵심 요약, 문제 2개로 구성했습니다.

02 문학 특강 넘버링

순서	EBS 수특/수완 p	넘버링	제목	분야/갈래	문항 유형
19	수특 문학 p.036	TG-133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현대소설	A·N-5
20	수특 문학 p.193	TG-134	해벽 (현대소설)	현대소설	K·N-9
21	수특 문학 p.016	TG-135	징 소리 (현대소설)	현대소설	A·N-9
22	수특 문학 p.185	TG-136	관부 연락선 (현대소설)	현대소설	K·N-7
23	수특 문학 p.009	TG-137	길 (현대시)	현대시	A·N-7
24	수특 문학 p.099	TG-138	눈 오는 날에 · 유등제 (현대시)	현대시	K·N-5
25	수특 문학 p.032	TG-139	하나씩의 별 (현대시)	현대시	A·N-5
26	수특 문학 p.013	TG-140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고전시가	K·N-9
27	수특 문학 p.048	TG-141	월곡답가 (고전시가)	고전시가	A·N-9
28	수특 문학 p.020	TG-142	임진록 (고전산문)	고전산문	K·N-7
29	수특 문학 p.125	TG-143	서해무릉기 (고전산문)	고전산문	A·N-7
30	수특 문학 p.304	TG-144	황새결송 (고전산문)	고전산문	K·N-5

넘버링 사용 원칙

• 넘버링(TG-115~TG-144)은 이 책의 강 번호이자 EBS 쪽·스터짐 N·트래커 학습 기록을 잇는 번호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학습하고 학습 기록표에 표시합니다.
• 한 강은 제시문(자료), 핵심 요약, 문제 2개로 구성했습니다.

독서 특강 116 · 문제 1

TG-116 예상문제 [C-1]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2강 p.127 ·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착오 송금의 구체적 사례와 그에 대한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①, ②, 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사례]

A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지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려다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이 되었다. A는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송금 실수를 했음을 알리고 해당 계좌 번호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A의 요구를 거절한 후 (①)을/를 알려 주며 이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은행 측은 수취인 B에게 전화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물었는데, 수취인 B는 이에 대해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 은행 측이 A에게 수취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은, (②)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측이 수취인 B에게 전화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 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행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 A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①)을/를 신청하면 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 수취인 B는 은행의 연락을 받은 뒤 타인의 돈을 맡고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③)이/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건〉

- ①: 윗글에 제시된 제도의 명칭을 그대로 쓸 것. (띄어쓰기 제외 10자)
- ②: 윗글에 제시된 법률의 명칭을 그대로 쓸 것. (띄어쓰기 제외 7자)
- ③: 윗글에 제시된 죄명을 그대로 쓸 것. (3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EXAM PRACTICE 문제

독서 특강 116 · 문제 2

TG-116 예상문제 [N-6]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2강 p.127 ·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보기1〉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기2〉의 ①~⑤ 중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번호로 각각 쓰시오.

윗글에 따르면 착오 송금 사안은 수취인의 인식(선의·악의) 과 송금인의 구제 수단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판단 기준]

ⓐ 선의의 수취인 — 착오 송금임을 몰랐던 경우로,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 악의의 수취인 —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이 성립한다.

ⓒ 예금 보험 공사가 운영하는 구제 제도의 신청 요건 — ㉡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함.)

㉮ 수취인의 행동을 선의로 판단할 수 있어, 반환 이후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

㉯ 수취인의 행동이 악의로 판단되어 형사적 책임이 성립하는 사례

㉰ 예금 보험 공사가 운영하는 구제 제도의 요건 중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

① 갑은 모바일 뱅킹으로 3만 원을 엉뚱한 계좌에 보냈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자 송금 다음 날 예금 보험 공사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② 을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200만 원을 거래처에서 받기로 한 물품 대금으로 오해하여 일부를 생활비로 썼으나, 은행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전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었다.

③ 병은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이 송금 실수임을 고지받고도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뒤 이를 카드 대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④ 정은 2년 전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자 예금 보험 공사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⑤ 무는 1,000만 원을 잘못 송금한 뒤 은행에 수취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은행은 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에 해당하는 번호: ___

㉯에 해당하는 번호: ___

㉰에 해당하는 번호: ___

핵심 요약

- 주제: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 확장의 중요성 구성 •1문단: 물리적 독서 공간의 의미와 구분 •2문단: 물리적 독서 공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문단: 인식적 독서 공간의 의미와 특징 •4문단: 독서 공간 확장의 중요성
- 핵심 개념: 물리적 독서 공간 · 본원적 독서 공간 · 전용된 독서 공간 · 인식적 독서 공간 · 가상 공간의 독서 · 공간의 이중성과 확장
- 대립 구조: 물리적 독서 공간 ↔ 인식적 독서 공간
- 대립 구조: 본원적 독서 공간 ↔ 전용된 독서 공간
- 대립 구조: 물리적 제약이 있는 공간 ↔ 물리적 제약이 없는 가상 공간
- 해제: 이 글에서는 책을 읽는 공간인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 공간 중 물리적 독서 공간은 본원적 독서 공간과 전용된 독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서 특강 117 · 문제 1

TG-117 예상문제 [A-1]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1강 p.280 ·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독서 공간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항목	내용
물리적 독서 공간	독서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는, 구체적인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공간
— 독서를 위해 마련된 공간	서재나 도서관과 같이 본래 독서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
— (①)	그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특정 순간에 책을 읽는 곳으로 활용되는 물리적 공간 (예: 버스, 지하철)
(②)	면적이나 부피를 지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독자가 책을 읽는 상황 자체를 하나의 독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는 공간으로, 장소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음 (예: 수업 시간, 집에 가는 길, 아침 독서 운동, 독서 모임)
가상 공간 속의 독서 공간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 등의 부담이 거의 없어, 독서 공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열린 공간

① _____

② _____

독서 특강 117 · 문제 2

TG-117 예상문제 [K]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1강 p.280 ·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소문항 1]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④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독서 공간의 유형

■ 독서 공간의 확장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독서 공간의 확장은 매우 중요해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가상 공간은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 등 (③)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④) 공간이다. 또한 가상 공간 속의 독서 공간은 읽기만이 아니라 쓰기도 가능한, 다중이 연결되어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글들이 무한히 존재하는 열린 공간이다.

구분	핵심 특징	해당 사례
물리적 독서 공간 — (①)	본래 독서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	서재, 도서관
물리적 독서 공간 — 다른 목적의 공간을 독서에 활용한 곳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으나 특정 순간에 책을 읽는 곳으로 활용되는 공간	버스, 지하철
물리적 공간이 아닌 독서 공간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②) 공간이므로, (③)에 구속받지 않음	수업 시간, 집에 가는 길, 아침 독서 운동, 독서 모임

〈조건〉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9자로 쓸 것.
- ②: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4자로, '-되는'으로 끝나는 형태로 쓸 것.
- ③: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6자로 쓸 것.
- ④: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자로, '-있는'으로 끝나는 형태로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소문항 2] 윗글을 바탕으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을 [소문항 1]의 ①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교실에 대한 윗글의 판단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9자 내외, '~ 때문이다.'로 끝맺을 것)

① _____

문학 특강 133 · 문제 1

TG-133 예상문제 [A]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36 ·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단, ①은 세 어절로 띄어쓰기 포함 8자, ②는 대사 한 문장 전체를 문장 부호 없이 쓸 것.)

① _____

② _____

「카인의 후예」는 토지 개혁 전후의 북한을 배경으로, 이념 대립의 비극과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그린 시나리오이다.

S#32에서 훈은 오작녀에게 "인제 오작녀도 자기 일을 좀 생각해야 할게요."라고 말한다. 이는 오작녀의 앞날을 염려한 말이지만, 오작녀는 자신에게 나가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다.

S#101에 이르러 농민 대회의 결정을 전하러 온 개털은, 훈을 (①)(으)로 규정하며 그의 모든 사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한다. 이 지점에서 훈은 지주와 농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 속에 일방적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오작녀는 아버지 도섭의 호통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며, 마침내 (②)라고 외침으로써 훈을 공격으로부터 구하려 한다. 소작인의 딸이 지주와 혼인한 사이가 되면 지주로서 당하는 공격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나온 이 거짓 진술은, 신분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오작녀의 애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① _____

② _____

문학 특강 133 · 문제 2

TG-133 예상문제 [N-5]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36 ·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EBS 연계: 보통 | 하 | 중 | 상

[문항]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토지 개혁 전후를 배경으로, 이념적 대립 구도 속에 놓인 인물들의 내면을 대사와 지시문으로 형상화한다. S#32에서 훈은 오작녀에게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떠나고 말면 (①) 당장은 떠나지 않겠다고 밝힌다. 이는 땅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근원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산을 지키려 다투는 전형적 지주상에서 벗어난 인물임을 보여 준다. 한편 S#101에서 오작녀는 아버지 도섭 영감이 들어가라고 호통을 치자 (②) 라고 선언하여 부녀 관계까지 끊어 내면서 훈의 편에 선다. 또한 '해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개털에게 오작녀는 (③)라는 말을 되풀이하는데, 이는 지주와 농민이라는 이분법적 이념의 언어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조건〉

- ①~③ 모두 윗글에 제시된 인물의 대사에서 찾아, 원문의 표기(고어·방언 포함)를 그대로 옮겨 쓸 것.
- ①은 띄어쓰기 포함 17자, ②는 띄어쓰기 포함 17자, ③은 띄어쓰기 포함 13자로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문학 특강 140 · 문제 1

TG-140 예상문제 [K]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13 ·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EBS 연계: 보통 | 하 | 중 | 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안민영, 「고울사 저 꽃이여」 / (나) 오경화,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다) 이규보,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소문항 1] (배점: 10점 / 각 1점)

다음은 (가)~(다)의 표현 방식과 시어의 의미 관계를 정리한 글이다. ㉮~㉲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가)와 (다)는 모두 시적 청자를 겉으로 드러내어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취한다. (가)의 화자는 '(㉮)'라고 거듭 부르며 반쯤 시든 꽃의 고운 자태를 예찬하고, (다)의 화자는 '(㉯)'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얕보지 말라고 항변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 우는 소리'에 낮잠을 깬 뒤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차례로 나열하는데, 이때 '낮잠'과 '술'은 사전적 의미의 범주가 다름에도 평화롭고 한가로운 일상이라는 단일한 의미로 수렴된다. 이와 달리 (다)에서는 농부의 '흙투성이 험한 꼴'과 왕손 공자들의 '(㉱)'이/가 하층민과 지배층의 삶을 각각 표상하면서 대립적인 의미 관계를 형성한다.

〈조건〉

- ㉮: 띄어쓰기 포함 5자, '~여'로 끝나는 말 (한자 병기 부분은 쓰지 말 것)
- ㉯: 띄어쓰기 포함 7자, '~아'로 끝나는 말
- ㉰: 띄어쓰기 없는 4자의 음성 상징어
- ㉱: 띄어쓰기 포함 5자의 명사구

[소문항 2] (배점: 3점)

(다)에서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설의적 표현으로 드러낸 행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고, 그 표현 방식의 효과를 한 문장(띄어쓰기 포함 25자 이상 45자 이하)으로 서술하시오.

[소문항 3] (배점: 3점)

(가)의 중장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에 비추어, 이 작품이 꽃에 대한 예찬의 어조 이면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조건〉

- 띄어쓰기 포함 45자 이상 70자 이하의 한 문장으로 쓸 것
- '~기 때문이다.'로 끝맺을 것
- '시들다(시든다)'라는 말을 반드시 사용할 것

답: _____

문학 특강 140 · 문제 2

TG-140 예상문제 [N-9]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13 ·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다음은 (나)와 (다)에 제시된 상황을 사건 단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①은 작품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②는 작품에 제시된 순서대로 배열하고, ③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A군] — (나)에 나타난 사건

a.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

b. 지어미가 술을 거르며 화자에게 맛보라고 권한다.

c. 작은아들이 글을 읽고 며느리가 베를 짜며 어린 손자가 꽃놀이하는 모습을 본다.

d. 화자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B군] — (다)에 나타난 사건

e. 아전들이 조세를 거둔다며 성화를 부린다.

f. 비를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을 맨다.

g. 심어 놓은 햇곡식이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란다.

① [A군] 순서: _____ → _____ → _____ → _____

② [B군] 순서: _____ → _____ → _____

③ ②의 g와 e가 이어서 제시된 상황을 근거로 할 때, (다)의 농부가 아전들의 행위를 부당하게 여기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햇곡식', '조세'라는 시어를 모두 사용할 것.
- '~때문이다.'로 끝맺는 한 문장으로 쓸 것.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자 이상 60자 이하로 쓸 것.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독서 특강 116 · 문제 1 정답과 해설

TG-116 예상문제 [C-1]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2강 p.127 ·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①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금 보험 공사가 운영하며" / "신청 요건은 첫째, 착오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둘째,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셋째,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개인 정보 보호법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한계는 …… 실제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다."
③	횡령죄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수취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띄어쓰기 제외 10자)를 정확히 쓴 경우에만 정답. '반환 지원 제도', '착오 송금 제도' 등 축약 표기는 오답(0점). 띄어쓰기 오류만 있는 경우는 감점하지 않음	4점
②	'개인 정보 보호법'(띄어쓰기 제외 7자)을 정확히 쓴 경우에만 정답. '개인 정보법', '정보 보호법' 등 축약 표기는 오답(0점). 띄어쓰기 오류만 있는 경우는 감점하지 않음	3점
③	'횡령죄'(3자)를 정확히 쓴 경우에만 정답. '횡령', '횡령 행위', '불법 영득' 등은 오답(0점)	3점
합계	부분 점수 인정(각 항목 독립 채점)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연계 교재 4번 문항의 〈보기〉(A의 500만 원 착오 송금 사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문항의 선지 ②③④⑤가 담고 있던 판단 내용(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의 연락, 신청 요건 및 회수 비용 공제, 악의 수취인의 형사 처벌)을 [분석]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그 속의 핵심 개념어 위치에 빈칸을 삽입함. 3번 문항의 '보관자 → 횡령죄' 판단 구조도 ⓒ에 반영함.

• 측정 능력: 구체적 사례에 지문의 법률·제도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 은행의 제한적 역할(개인 정보 보호법상 한계)과 적극적 역할(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개)을 구분하는 능력, 수취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를 판별하여 정확한 개념어로 인출하는 능력.

풀이전략

① 빈칸이 '이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서술과 호응하고, ⓑ에서 '1년 이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자진 반환 없음'이라는 세 가지 신청 요건이 그대로 나열되므로 6문단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정확한 명칭 그대로 옮겨 적는다. ② 빈칸은 은행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는 법률상 제한 때문이라는 6문단 서술에서 법률명을 찾으면 된다. ③ 빈칸은 '보관자',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 '형사 처벌'이라는 요건 결합을 4문단의 성립 요건과 대조하여 죄명을 확정한다. 모든 정답은 조건에 제시된 글자 수(띄어쓰기 제외)로 검산한 뒤, 지문의 표현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그대로 쓸 것.

독서 특강 116 · 문제 2 정답과 해설

TG-116 예상문제 [N-6]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2강 p.127 ·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	②	4문단 "일부 수취인은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할 수 있고" / 5문단 "선의란 착오 송금임을 몰랐던 경우로, 이때는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하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	③	5문단 "악의란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로, 이때는 형사적 책임이 성립한다." / "수취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	①	6문단 "신청 요건은 첫째, 착오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	'②'를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번호 외 서술 추가 시에도 번호가 ②이면 인정, 복수 번호 기재 시 오답)	4점
㉯	'③'을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복수 번호 기재 시 오답)	3점
㉰	'①'을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 기간 요건 미충족 사례인 '④'를 쓴 경우 오답	3점
합계	부분 점수 인정(각 항목 독립 채점)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문항(수취인에 대한 이해)의 핵심 쟁점인 선의·악의 구분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의 분화와, EBS 4번 〈보기〉 문항의 ④번 선지가 다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금액·기간·미반환) 을 결합하였다. EBS 선지 내용을 사례형 예시 ①~⑤로 변환하여, 선지 판단을 '기준 적용 → 사례 분류'의 능동적 작업으로 재구성하였다.

• 측정 능력: ① 법적 개념(선의/악의)의 요건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 ② 제도의 복수 요건을 항목별로 분리해 충족 여부를 변별하는 능력(금액 요건 vs. 기간 요건), ③ 여러 단락(4·5·6문단)에 흩어진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풀이전략

먼저 사례마다 "수취인이 착오 송금임을 알았는가" 를 체크한다. ②는 '오해'했으므로 선의, ③은 '고지받고도' 거부·소비했으므로 악의로 즉시 판별된다. 다음으로 제도 관련 사례(①·④)는 금액·기간·자발적 미반환의 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①은 3만 원이므로 금액(5만 원 이상) 미달, ④는 2년이 지나 기간(1년 이내) 미달이므로, 발문이 요구한 '금액 요건' 위반은 ①뿐이다. 마지막으로 ⑤는 은행의 개인 정보 제공 제한을 다룬 사례로 세 조건과 축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외한다.

독서 특강 117 · 문제 1 정답과 해설

TG-117 예상문제 [A-1]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1강 p.280 ·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①	전용된 독서 공간	"그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특정 순간에 책을 읽는 곳으로 활용되는 물리적 공간은 ㉡전용된 독서 공간이다. 버스나 지하철은 원래 이동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그곳은 하나의 독서 공간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1문단)
②	인식적 독서 공간	"이러한 공간은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 인식적 독서 공간이므로 물리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3문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전용된 독서 공간'을 정확히 쓴 경우 정답(5점). '전용된 공간', '전용 독서 공간' 등 윗글의 표현과 다르게 쓴 경우 부분 점수 3점. '본원적 독서 공간', '물리적 독서 공간' 등으로 쓴 경우 0점	5점
②	'인식적 독서 공간'을 정확히 쓴 경우 정답(5점). '인식 공간', '인식적 공간' 등 윗글의 표현과 다르게 쓴 경우 부분 점수 3점. '가상 공간', '물리적 독서 공간' 등으로 쓴 경우 0점	5점
합계	—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지문연계 + 문항연계. EBS 2번 문항(㉠~㉢의 포함·배타 관계 추론)과 3번 문항(사례 적용) 모두가 전제로 삼고 있는 '물리적 독서 공간(본원적/전용된) ↔ 인식적 독서 공간'의 개념 체계를, EBS 보기·선지를 인용하지 않고 출제자가 2열 표로 새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EBS 2번 정답 해설의 "전용된 독서 공간은 물리적 독서 공간의 일부"라는 포함 관계를 표의 들여쓰기(— 표시)로 시각화하여, 상위·하위 개념의 위계를 함께 묻도록 설계하였다.

• 측정 능력: 설명문에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위계를 파악하는 능력, 개념의 정의(존재 목적 vs. 실제 활용 / 물리적 실체 vs. 의식 속 형성)와 예시를 연결하여 해당 개념어를 원문에서 정확히 인출하는 능력.

풀이전략

① 칸은 '독서를 위해 마련된 공간'과 나란히 물리적 독서 공간의 하위 항목으로 들여쓰기되어 있으므로, 1문단에서 본래 독서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과 "이와 달리"로 대비된 개념을 찾으면 된다. '버스, 지하철'이라는 예시가 결정적 단서다. ② 칸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책을 읽는 상황 자체를 하나의 독서 공간으로 인식"이라는 설명이 3문단 내용과 일치하므로 해당 문장의 개념어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 이때 마지막 행의 '가상 공간 속의 독서 공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두 정답 모두 '~ 독서 공간'이라는 어미까지 포함해 원문 표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독서 특강 117 · 문제 2 정답과 해설

TG-117 예상문제 [K]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독서 1강 p.280 ·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①	본원적 독서 공간	"이름만 놓고 보면 독서실은 본원적 독서 공간에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서재나 도서관과 같이 본래 독서를 위해 존재하는 본원적 독서 공간이 있다."
②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인식적 독서 공간이므로 물리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③	물리적 제약	"물리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가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달리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④	누구나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은 누구나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 공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소문항 2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이 독서를 전제한다고 보면 본원적 독서 공간에 가깝지만, 독서실은 처음부터 독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시험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89자)	"학생들의 학습이 독서를 전제한다고 본다면 이 공간은 본원적 독서 공간에 가깝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은 처음부터 독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시험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므로 본원적 독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본원적 독서 공간'(띄어쓰기 포함 9자)을 정확히 쓴 경우만 정답. '본원적 공간', '본원적 독서' 등 축약형은 오답	2점
②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띄어쓰기 포함 14자, '-되는'으로 끝남)을 원문 그대로 쓴 경우만 정답. '의식 속에 형성되는'(10자) 등 글자 수 미달은 오답	2점
③	'물리적 제약'(띄어쓰기 포함 6자)을 정확히 쓴 경우만 정답. '물리적 공간', '물리적 한계' 등은 오답	2점
④	'누구나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는'(띄어쓰기 포함 18자, '-있는'으로 끝남)을 원문 그대로 쓴 경우만 정답.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는'(14자) 등 글자 수 미달은 오답	2점
소문항 2	(1) 교실에 대한 윗글의 판단, 곧 학생들의 학습이 독서를 전제한다면 교실은 본원적 독서 공간에 가깝다는 내용을 제시(1점) (2) 이와 대비하여 독서실은 처음부터 독서가 아니라 시험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근거를 제시(1점). 두 공간을 가르는 기준이 이름이 아니라 그 공간이 만들어진 목적임이 드러나야 하며, 교실에 대한 판단 없이 독서실만 서술하면 (2)만 인정 (3) 분량(80자 내외)이나 '~ 때문이다.' 어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1점 감점(최저 0점)	2점
합계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지문연계 + 문항연계. EBS 1번(세부 내용 파악)의 오답 ③ '교실과 마찬가지로 독서실도 본원적 독서 공간'이라는 최대 함정 선지를 서술형(소문항 2)으로 전환하였고, EBS 2번 ㉠~㉢ 관계 추론의 핵심 근거 문장(3문단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물리적 제약')을 빈칸으로 변환하였다. 4문단 가상 공간의 속성('누구나 제한 없이 도달할 수 있는')은 EBS 3번 ⑤번 선지의 판단 근거를 원문 표현으로 복원한 것이다.

• 측정 능력: ① 상위 개념(물리적/인식적)과 하위 개념(본원적/전용된)의 포함 관계를 표로 재구성하여 파악하는 능력, ② 개념의 정의적 진술을 원문 표현 그대로 인출하는 정밀 독해력, ③ '이름'이 아니라 '설립 목적'이라는 판단 기준을 적용해 유사 사례(교실 vs 독서실)를 변별하는 비판적 적용력.

풀이전략

1. 표의 '해당 사례' 칸을 먼저 보라. '서재, 도서관'이 제시된 행은 1문단의 "본래 독서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 즉 본원적 독서 공간임을 즉시 확정할 수 있다.

2. ②·③은 3문단 마지막 두 문장에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들어 있다.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 공간이므로 ~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통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어절을 끊어 세면 14자·6자 조건이 맞아떨어진다.

3. ④는 4문단에서 가상 공간의 속성을 나열한 문장 중 '물리적 제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찾는다. 빈칸 뒤에 '공간이다'가 붙어 있으므로 '~ 공간이며'의 '공간'은 정답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소문항 2는 '독서실'과 '교실'을 가르는 기준이 이름이 아니라 만들어진 목적임을 명시해야 한다. 2문단의 '학습이 독서를 전제' vs '시험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 두 표현을 반드시 대비시켜 쓰고, 어미를 '때문이다.'로 맞출 것.

문학 특강 133 · 문제 1 정답과 해설

TG-133 예상문제 [A]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36 ·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①	악질 반동 지주	"우리 농민 대회는 지주 박훈을 악질 반동 지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데 이의가 없음." (S#101, 개털의 대사)
②	우리는 부부가 되시요	"오작녀: 우리는 부부가 되시요! / 말하고 그녀는 온몸의 맥이 빠지는 듯 눈을 감는다." (S#101)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악질 반동 지주'(세 어절, 띄어쓰기 포함 8자)를 정확히 쓴 경우 정답. '반동 지주', '악질 지주' 등 일부만 쓴 경우 오답(0점).	5점
②	'우리는 부부가 되시요'를 원문 표기 그대로 쓴 경우 정답. 느낌표(!)의 표기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부부가 되었소', '부부입니다' 등 현대어로 고쳐 쓴 경우 오답(0점).	5점
합계	—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지문연계 + 문항연계. EBS 해설서의 주제("이념 대립의 비극과 금기를 넘어선 사랑")와 2번 문항 〈보기〉의 감상 관점(지주–농민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대한 회의적 시선), 1번 문항 정답 해설의 핵심 근거("농민인 자신과 훈이 결혼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여 훈을 구하려고 한다")를 출제자가 새로 작성한 감상 요약 단락으로 재구성하고, 그 핵심 자리를 빈칸화하였다.

• 측정 능력: ① 갈등의 공적·제도적 국면을 압축한 규정적 표현을 지문에서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 ② 극적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 대사를 찾아 인물의 의도(훈을 구하기 위한 거짓 진술)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

풀이전략

1. 빈칸 ①은 "사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통보" 바로 앞에 놓여 있으므로, 개털이 농민 대회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대사에서 훈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찾으면 된다. "악질 반동 지주로 규정하는 동시에"라는 구절이 그대로 답이 된다.

2. 빈칼 ②는 "거짓 진술", "외침", "온몸의 맥이 빠지는 듯 눈을 감는다"와 연결되므로, 작품의 마지막 대사를 확인한다. 모든 인물이 "아연해서 웅성거"리게 만든 한마디가 정답이다.

3. 두 빈칸 모두 지문에 그대로 있는 표현이므로 요약·의역하지 말고 원문 표기(방언 어미 '되시요' 포함)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4. 특히 ②를 '부부입니다'처럼 현대어로 다듬으면 오답 처리되므로, 고전·방언 표기 유지 원칙을 기억할 것.

문학 특강 133 · 문제 2 정답과 해설

TG-133 예상문제 [N-5]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36 · 카인의 후예 (현대소설)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①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애서	훈: "…… 무어 농토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지금 떠나고 말면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애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내쫓지 않는 이상 여길 떠나고 싶진 않소"
②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	도섭: "(오작녀에게) 썩 들어가디 못하간!" / 오작녀: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
③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작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 개털: "모르다니? 뭘 모른단 말이오?" / 오작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애서'를 원문 표기 그대로(띄어쓰기 포함 17자) 쓴 경우만 정답 인정. '같아서' 등 현대어로 고쳐 쓰거나 글자 수 조건을 벗어난 경우(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애서', '지금 떠나고 말면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애서')는 0점	4점
②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를 원문 표기 그대로(띄어쓰기 포함 17자) 쓴 경우만 정답 인정. '아니에요/아니어요'로 고쳐 쓰거나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처럼 일부만 쓴 경우는 0점	3점
③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를 원문 표기 그대로(띄어쓰기 포함 13자) 쓴 경우만 정답 인정. '당신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등 표기·글자 수가 어긋난 경우는 0점 (문장 부호 '!'의 표기 여부는 불문)	3점
합계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지문연계. EBS 1번 선지 ③(훈이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오작녀를 걱정함)과 2번 〈보기〉의 "전형성에서 탈피", "이념적 대립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라는 감상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되, 이미 출제된 '악질 반동 지주', '우리는 부부가 되시요'를 피하여 S#32의 훈의 대사(고향에 대한 미련)와 S#101의 오작녀의 대사(부녀 관계 단절, 이념 언어에 대한 거부)에서 정답을 추출하였다. EBS 2번 '학생 ㄷ'의 오답 포인트(도섭과 오작녀의 충돌)를 ②의 근거 단락으로 재활용하였다.

• 측정 능력: 감상문에 제시된 해석(소유욕이 아닌 고향에 대한 미련 / 혈연보다 앞선 선택 / 이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감정)을 단서로, 서로 다른 장면(S#32·S#101)에 흩어진 대사를 정확히 대응시켜 찾아내는 종합적 독해력 및 고어·방언 표기를 훼손하지 않고 인용하는 정확성.

풀이전략

① 빈칸 앞의 "지금 떠나고 말면"이 훈의 대사를 그대로 옮긴 표현임을 포착하면, S#32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농토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라는 단서가 '소유욕이 아닌 고향에 대한 미련'이라는 해석과 맞물린다. ② "아버지 도섭 영감이 들어가라고 호통"이라는 상황 지시어를 S#101에서 찾아 그 직후 오작녀의 응답 대사를 그대로 옮긴다. ③ "되풀이하는데"라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로, 개털의 "모르다니?"를 사이에 두고 두 번 반복되는 대사를 찾으면 된다. 세 답 모두 '~같애서', '아니야요', '당신네는' 같은 평안도 방언 표기를 절대 현대어로 고치지 말고, 글자 수를 손가락으로 끊어 세어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산할 것.

문학 특강 140 · 문제 1 정답과 해설

TG-140 예상문제 [K] — 문제 1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13 ·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1-㉮	저 꽃이여	(가) "고울사 저 꽃이여 반(半)만 여윈 저 꽃이여"
1-㉯	왕손 공자들아	(다) "왕손 공자들아 더 이상 얕보지 마오"
1-㉰	꾀꼴꾀꼴	(나)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1-㉱	부귀 호사	(다) "그대들의 부귀 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2	첫 어절: 어찌 / 마지막 어절: 침탈하는가 / 서술 예시: "설의적 표현으로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강조하여 드러낸다."(39자)	(다)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3	예시: "모든 꽃은 끝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이므로 반만 여윈 꽃도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58자)	(가) "반(半)만 여윈 저 꽃이여 /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저 꽃이여'(띄어쓰기 포함 5자)를 정확히 쓴 경우만 정답. '고울사 저 꽃이여', '꽃이여', '반만 여윈 저 꽃이여' 등 글자 수 조건 불일치는 0점	1점
1-㉯	'왕손 공자들아'(띄어쓰기 포함 7자)를 정확히 쓴 경우만 정답. '왕손 공자', '공자들아' 등은 0점	1점
1-㉰	'꾀꼴꾀꼴'(4자)을 정확히 쓴 경우만 정답. '꾀꼬리'는 윗글에 없는 말이므로 0점	1점
1-㉱	'부귀 호사'(띄어쓰기 포함 5자)를 정확히 쓴 경우만 정답. '부귀', '부귀 호사 우리 농부' 등은 0점	1점
2	첫 어절 '어찌' 1점, 마지막 어절 '침탈하는가' 1점 / 서술 1점: '설의적 표현(설의법)'과 '수탈(침탈)에 대한 원망·불만의 강조'가 모두 드러나야 인정. 글자 수(25~45자) 또는 한 문장 조건 위반 시 서술 0점	3점
3	① '모든 꽃은 결국 시든다(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순리 제시 1점 ② '반만 여윈 꽃도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 것'이라는 추론 1점 ③ 조건 충족(45~70자·한 문장·'~기 때문이다.'로 종결·'시들다' 사용) 1점.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 시 ③ 항목 0점	3점
합계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 지문연계. EBS 1번(명시적 청자·청각적 심상·설의법), 2번(화자 설정), 3번(시어의 의미 관계망 — '흙투성이 험한 꼴' vs '부귀 호사'의 대립, '낮잠'과 '술'의 의미 수렴)의 정답 해설 근거를 모두 하나의 요약문으로 재통합하였다. 또한 해제의 "모든 꽃은 끝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이므로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게 될 꽃에 대한 안타까움"을 소문항 3의 서술 답안 핵심으로 삼았다.

• 측정 능력: ① 호격어·음성 상징어 등 표현 요소를 원문에서 정확히 인출하는 능력 ② 세 작품에 걸친 대립 구조(하층민↔지배층)와 수렴 구조(일상의 평화)를 동시에 파악하는 능력 ③ 설의적 표현의 기능을 설명하는 능력 ④ 예찬 이면의 안타까움이라는 양가적 정서를 논리적 인과로 진술하는 능력.

풀이전략

1. 소문항 1은 글자 수가 곧 힌트다. ㉮·㉯는 '부르는 말(호격)'을 찾으라는 신호이므로 종결 어미 '~여', '~아'에 주목해 초장·3행에서 각각 '저 꽃이여', '왕손 공자들아'를 뽑되, '고울사'·'더 이상' 같은 수식 요소는 잘라낸다.

2. ㉰는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해설에 익숙한 '꾀꼬리'를 쓰면 오답이며, 반드시 본문 표기인 '꾀꼴꾀꼴'을 써야 한다.

3. ㉱는 (다)의 대립 축을 떠올린다. 농부의 '흙투성이 험한 꼴'과 짝을 이루는 지배층의 삶은 4행의 '부귀 호사'다.

4. 소문항 3은 '매양 그만하여 있어'가 현 상태의 지속을 바라는 소망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라. 지속을 바란다는 것은 곧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 '꽃은 결국 시든다 → 이 꽃도 곧 완전히 시든다'의 2단 논리를 반드시 모두 적고 '~기 때문이다.'로 닫는다.

문학 특강 140 · 문제 2 정답과 해설

TG-140 예상문제 [N-9] — 문제 2

출처: EBS 수능특강 문학 1강 p.013 · 고울사 저 꽃이여 · 꾀꼴꾀꼴 우는 소리에 · 농부를 대신하여 울다 (고전시가)

EBS 연계: 보통 하 중 상

정답과 해설

하위문항	정답	지문 근거 (원문 인용)
①	d → a → c → b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 작은 아들 글을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 때마침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②	f → g → e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③	햇곡식이 아직 논밭에서 자라고 있어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아전들이 벌써부터 조세를 거두려 하기 때문이다. (띄어쓰기 포함 58자)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d → a → c → b를 모두 순서대로 쓴 경우에만 정답 인정(부분 순서 일치는 0점). 화살표 대신 'd a c b'로 나열해도 인정	3점
②	f → g → e를 모두 순서대로 쓴 경우에만 정답 인정(부분 순서 일치는 0점)	3점
③	(1) '햇곡식'과 '조세'를 모두 사용(1점) (2) '수확(추수)하기 전인데 미리·먼저 거둔다'는 시간적 선후의 부당함을 밝힘(2점) (3) '~때문이다.'로 끝나는 한 문장, 띄어쓰기 포함 50~60자 충족(1점). 글자 수 미달·초과 시 (3)항 0점	4점
합계		10점

출제의도

• EBS 연계 방식: 문항연계. EBS 3번 선지 ⑤의 해설("'햇곡식'은 농부들이 가꾸는 대상이고, '조세'는 노동이 끝난 후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 "'조세'는 수탈의 한 방법으로 표현")에서 포착한 제도적 선후 관계를 사건 배열 형식으로 재구성하였고, EBS 단락 구성의 '초장: 꾀꼬리 울음소리에 낮잠을 깸 → 중장: 가족의 일상 → 종장: 아내가 술을 거름'이라는 시상 전개 순서를 [A군]에 활용하였다.

• 측정 능력: 서정 갈래의 시상 전개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능력, 시어 간 선후·인과 관계를 파악해 화자의 정서(원망·불만)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능력.

풀이전략

① (나)는 초장→중장→종장이 곧 시간 순서이다. 단, '낮잠 깨어'라는 표현에는 '깨기 이전에 자고 있었다'는 전제가 숨어 있으므로 d를 맨 앞에 두어야 한다. 선후를 가르는 단서어('깨어 일어나 보니', '때마침')에 표시하며 읽는다.

② (다)는 작품에 '김매기(노동) → 곡식이 자람 → 조세 징수'의 순서로 제시되며, '벌써부터'라는 부사가 곡식이 아직 자라는 중인데 조세 징수가 때 이르게 닥쳤음을 알려 준다.

③ g와 e에서 '아직 자라는 중'과 '벌써부터'의 대비를 그대로 문장화하면 된다. 수탈의 직설적 비판이라는 주제를 '수확 전 징수'라는 사실 관계로 환원해 쓰되, 지정 시어 2개와 글자 수(띄어쓰기 포함 50~60자)를 반드시 세어 검산한다.

COPYRIGHT

Published & Directed by Choi Young
Designed by Saturday Design

Copyright © by STUGYM 스터짐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wor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s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or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or retrieval syste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unless such copying is expressly permitted by federal copyright law.
Att: contracts, Copyrights, and Licensin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 8층 806호
First edition Nov 2026

스터짐 유료 회원 전용 교재

비매품

STUGYM N REVIEW EVENT

후기 남기고, 추가 교재 1권 받기

스터짐 N에 교재후기 · 수강후기 · 사용후기 중 하나를 남겨 주세요.

01 합격을 앞당길 추가 교재 1권 택1

① 가천대 4개년 수학 기출 완벽 분석(수학I)
② 가천대 4개년 수학 기출 완벽 분석(수학II)
③ 약술형 국어 주제별 핵심 분석집

stugymN

QR 찍고 스터짐N 접속 후기 작성 · 추가 혜택 받기

01은 후기 작성 혜택이며,
02 · 03은 스터짐N 접속 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터짐 N에 접속하면 추가 혜택까지!

02 2026 가천대 기출분석집 PDF

스터짐N에서 무료로 받기

03 스터짐 홈페이지 5,000P

교재 · 인강 · 올인원 패키지 결제에 사용

WHY STUGYM N?

약술형 논술은 출제 교재가 정해진 시험입니다.

따라서 회독 횟수와 이해도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스터짐N은 교재에 실린 국어 제시문과 수학 문항의 중요도 · 출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독 횟수와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 · 기록하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국어
중요 제시문 확인
회독 횟수 · 이해도 기록

수학
중요 문항 확인
회독 횟수 · 이해도 기록

stugymN

QR 찍고 스터짐N 접속

지금 QR 찍고
회독 · 이해도 기록 시작
KN · MN 번호로 모든 제시문과 문항의
회독 · 이해도 기록을 한눈에 관리합니다.
중요한 문항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세요.

01 중요도 확인 → 02 반복 학습 → 03 이해도 점검 → 04 데이터 누적

스터짐 프로그램이 더 궁금하다면?
스터짐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스캔

Spartan PE System STUGYM

홈페이지: www.stugym.net